

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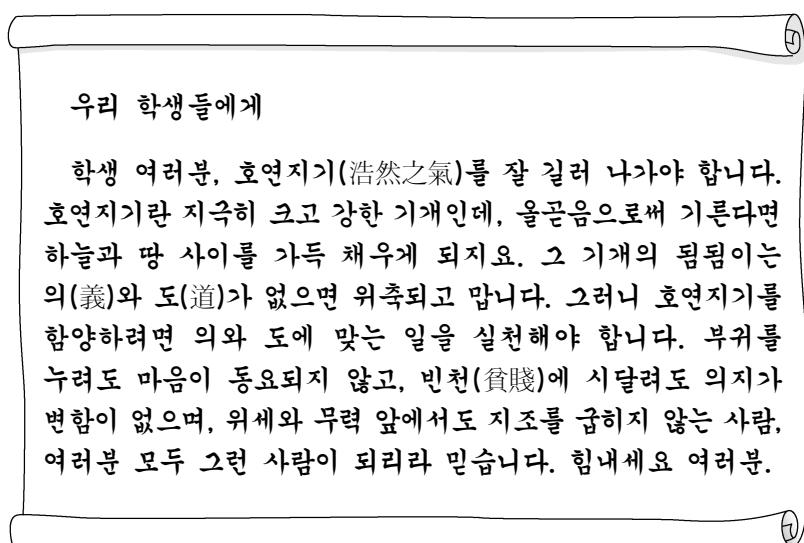
성명

수험 번호

제 [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[化性起僞] 한다.
- ②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계(戒), 정(定), 혜(慧)를 습관화해야 한다.
- ③ 어떤 것에도 얹매이지 않는 절대적 경지[逍遙]에 도달해야 한다.
-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[集義] 한다.
- ⑤ 친소(親疏)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[兼愛] 한다.

2.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갑: 선악 구별은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 적용될 수 없다.
- ② 갑: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.
- ③ 을: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.
- ④ 을: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.
- ⑤ 갑, 을: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이다.

3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,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.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몰아내야 한다.

을: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,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. 최대 행복 원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갑: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.
- ② 갑: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.
- ③ 을: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갑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.
- ④ 을: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.
- ⑤ 갑, 을: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.

4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열반이란 탐욕[貪], 성냄[瞋], 어리석음[癡]이 멀하여 모든 번뇌가 영원히 멀한 것이다. 열반을 얻는 도(道)가 곧 팔정도(八正道)이니 닦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.

을: 지인(至人)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노니는[遊] 자이다. 그러므로 세상 일을 따라 허둥지둥하지 않는다.

- ① 갑: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.
- ② 갑: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(無明)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.
- ③ 을: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.
- ④ 을: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.
- ⑤ 갑, 을: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.

5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영명(靈明)뿐이다. 사랑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으며 예의 바를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. 하지만 하늘이 인의예지(仁義禮智)라는 네 가지 알맹이를 인간의 본성 속에 부여했다고 말한다면,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.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반드시 일을 행한[行事] 이후에 성립한다.

- ① 사덕(四德)은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.
- ② 자주자권(自主之權)은 스스로 선(善)을 실천해야 생기는 권능이다.
- ③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(靈知)의 기호이다.
- ④ 인간은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태고난다.
- ⑤ 사비지심(是非之心)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한 마음이다.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6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도(道)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(頓悟)와 점수(漸修)뿐이다. 돈오돈수(頓悟頓修)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과거 여러 생애에 걸쳐 돈오한 이후에 점수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.
을: 수행 방법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에는 일심(一心)의 진여문(眞如門)에 의하여 지행(止行)을 닦고 생멸문(生滅門)에 의하여 관행(觀行)을 일으킨다. 둘을 함께 운용하면 모든 실천 수행이 여기에 갖추어지게 된다.

- ① 갑: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.
- ② 갑: 정(定)을 닦고 혜(慧)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(習氣)가 사라진다.
- ③ 을: 일심에서 보면 진여(眞如)와 생멸(生滅)은 그 근본이 다르다.
- ④ 을: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.
- ⑤ 갑, 을: 마음 밖의 진리를 찾아 깨우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.

7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[爲者]은 실패하고,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. 그런 까닭에 성인(聖人)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 [無爲] 실패함이 없고, 움켜잡음이 없으니 잃음이 없다.
을: 그릇은 옹기장이의 작위[僞]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. 예의(禮義)는 성인의 작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.

- ①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가?
- ② 하늘[天]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?
- ③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?
- ④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?
- ⑤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(無知)와 무욕(無欲)을 지향하는가?

8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,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속시키고,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.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.
을: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.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원리이다.

- ① 갑: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.
- ② 갑: 우상 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다.
- ③ 을: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.
- ④ 을: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.
- ⑤ 갑, 을: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.

9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페리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좋은 점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. 손, 발,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좋은 점도,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좋은 점도 각각의 기능에 있다.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 주는 탁월성을 갖추는 것,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.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에 목적이 있듯,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짓들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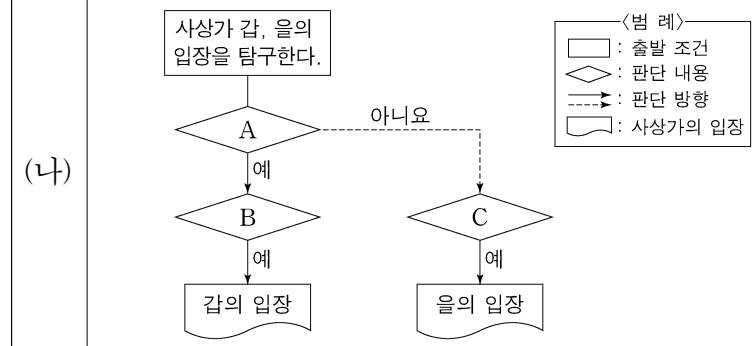
<보기>

- ㄱ.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.
- ㄴ.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.
- ㄷ. 좋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.
- ㄹ. 사물의 좋은 점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ㄷ
④ ㄱ, ㄴ, ㄹ ⑤ ㄴ, ㄷ, ㄹ

10. (가)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성(性)이고 그 작용이 되는 것이 정(情)이다.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.
을: 마음에는 모든 이치[理]가 갖추어져 있어서 만사(萬事)가 여기에서 나온다. 마음 밖에 이치는 없고, 마음 밖에 사(事)는 없다.



- #### <보기>
- ㄱ. A: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일이 격물(格物)인가?
 - ㄴ. B: 인간 모두가 지닌 천리로서의 본성[本然之性]은 선한가?
 - ㄷ. B: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이(理)를 궁구해야 하는가?
 - ㄹ. C: 치지(致知)를 위해서는 사욕[人欲]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1. 중세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,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. 즉,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,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.

을: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.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.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잡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, 그 외의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.

- ① 갑: 도덕적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다.
- ② 갑: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.
- ③ 을: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된다.
- ④ 을: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다.
- ⑤ 갑, 을: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지복(至福)이 완성된다.

12. 갑,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.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정(情)에는 희(喜), 노(怒), 애(哀), 구(懼), 애(愛), 오(惡), 욕(欲)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다. 사단이란 선(善)한 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니,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들어 있다.

을: 칠정과 기(氣)와의 관계는 사단과 이(理)와의 관계와 같다. 칠정과 사단이 발현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기와 이로 분류하여 소속 시킬 수 있다.

- ① 사단과 칠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음을 간과한다.
- ②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(性)이 발현한 정(情)임을 간과한다.
- ③ 사단은 순선하지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.
- ④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간과한다.
- ⑤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만 스스로 작용함을 간과한다.

13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국가는 철학자,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.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,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,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.

- ①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.
- ②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다.
- ③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이 있다.
- ④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.
- ⑤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.

14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	갑: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. 을: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,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.
(나)	<p>〈범례〉 A : 갑만의 입장 B : 갑, 을의 공통 입장 C : 을만의 입장</p>

- ① A: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.
- ② A: 개인의 권리가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.
- ③ B: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.
- ④ C: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.
- ⑤ C: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.

15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갑: 의복·식용(食用)·기용(器用)에 양물(洋物)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궁궐의 뜰에 모아 태워 버려야 한다. 그리고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(道)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와 윤리를 넓혀 나가야 한다.

을: 오랑캐 땅에서도 효제충신의 도는 해와 별처럼 빛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. 바뀔 수 없는 도와 바뀔 수 있는 기(器)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다.

- <보기>
- ㄱ. 갑: 화친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충효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.
 - ㄴ. 을: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외국과 화합해야 한다.
 - ㄷ. 갑, 을: 서양의 종교와 도덕으로 유학 정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.
 - ㄹ. 갑, 을: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,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.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.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, 참된 무한성을 갖는,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,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.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.

-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.
-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.
-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.
-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.
-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.

17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[3점]

갑: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,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,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. 신,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.
을: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,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.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.

- ① 갑: 모든 일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 갑: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초월적 원인이다.
- ③ 을: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.
- ④ 을: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.
- ⑤ 갑, 을: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.

18. 현대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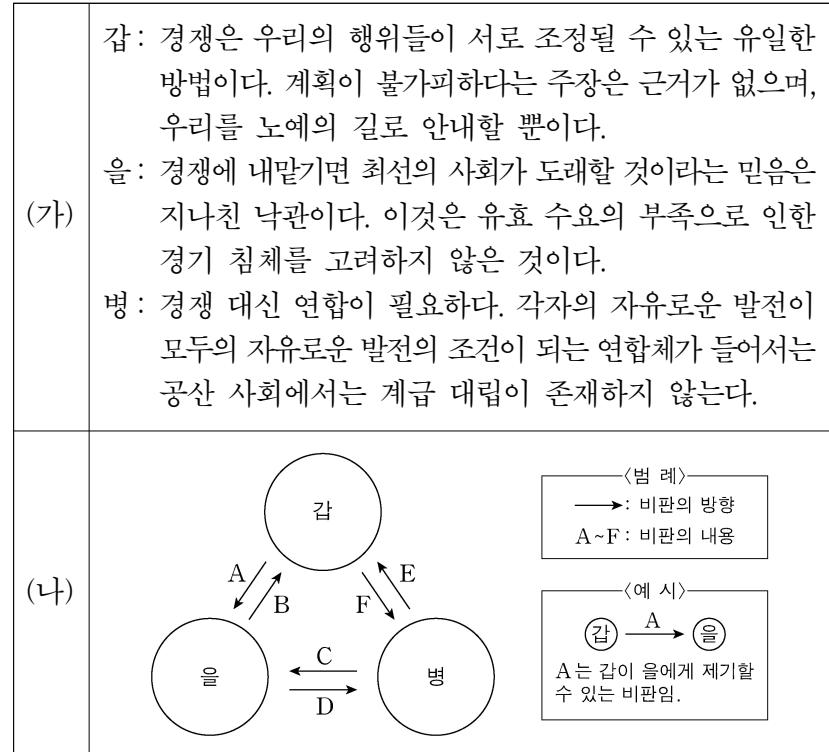
갑: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,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.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. 공화국의 공공선은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.
을: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된다. 이것은 통제나 간섭의 근원을 묻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구분된다.

<보기>

- ㄱ. 갑: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- ㄴ. 갑: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.
- ㄷ. 을: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.
- ㄹ. 갑, 을: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19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A: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② B: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③ C: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.
- ④ D, F: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한다.
- ⑤ E: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은 노예로 전락함을 간과한다.

20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우리 아테네의 정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.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,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다.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데,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.
 을: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,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. 여기서 필요한 공적 이성은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.

- ① 갑: 시민은 주권자이지만 공직을 직접 담당할 권한은 없다.
- ② 갑: 시민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정치적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- ③ 을: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.
- ④ 을: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의 절차보다 결론의 내용에 달려 있다.
- ⑤ 갑, 을: 정치 참여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.

*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